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63-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정보 과잉 시대,
중요한 것은 옳은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

2024. 01. 10.

담당자 박성모 프로

전화 | 02-3014-0051

e-mail | smpark@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정보 과잉 시대, 중요한 것은 옳은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결과

-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를 이용할 때는 주어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정보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져 왔다면, 이제는 단순히 글을 이해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는,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 점점 더 넓어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어떠한 문해능력이 더욱 중요해질까? 본인 스스로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과 정보 매체 이용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2023년 11월 10일 ~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 향후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능력 모두 ‘올바른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필터링 능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다.
- 문해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모두 높은 것과 달리, 우리 사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4%에 그쳤으며, 56%의 응답자가 ‘정보 필터링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 응답자 중 58%가 초·중·고 교육과정이 현재 자신의 문해능력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였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교육과정에서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능력으로는 ‘정보 필터링 능력’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49%, ‘정보를 종합·비교·분석하는 능력’ 44%, ‘옳은 정보를 전달·공유하는 능력’ 17%, 정보를 찾고 얻는 능력 9% 순이다.

1

정보·지식습득을 위해 이용하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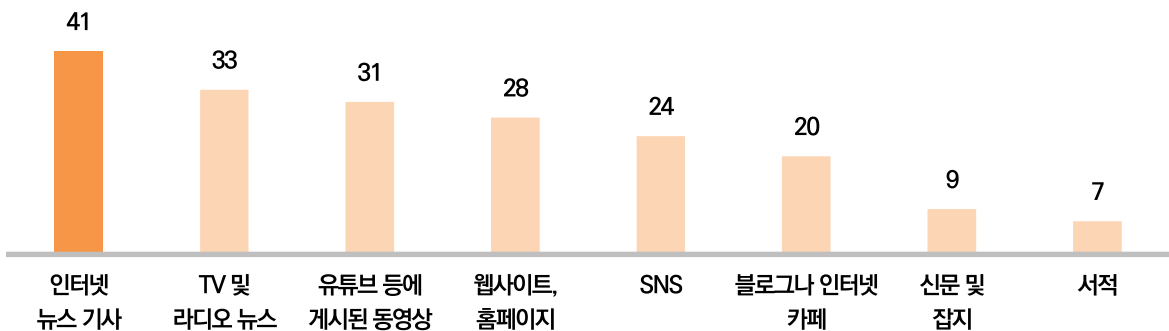
**‘매일 이용한다’ 비율은 ‘인터넷 뉴스 기사’,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TV 및 라디오 뉴스’가 가장 높아**

이번 조사에서, 정보와 지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매체로는 ‘인터넷 뉴스 기사’가 41%로 가장 높았고 ‘TV 및 라디오 뉴스’, ‘유튜브 등에 게시된 동영상’이 각각 33%, 31%로 뒤를 잇는다. 반면, ‘서적’과 ‘신문 및 잡지’의 이용률은 각각 7%, 9%에 그친다.

중요한 지식을 찾을 때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TV 및 라디오 뉴스(63%), 인터넷 뉴스 기사(60%)가 높았고, 웹사이트·홈페이지(37%), 유튜브 등에 게시된 동영상(35%) 같은 온라인 매체가 신문 및 잡지(25%), 서적(22%) 등 인쇄 매체를 앞섰다(복수응답). 반면, SNS를 신뢰하는 사람은 14%에 그친다. SNS는 전 세계 사람들과의 빠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었지만,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찾는 수단으로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정보와 지식을 찾기 위해 매일 사용한다 비율은 ‘인터넷 뉴스 기사’가 41%로 가장 높아



질문: 귀하께서는 정보와 지식을 찾기 위해 다음 매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비고: 각 문항에 대해 ‘매일 사용한다’ 응답 비율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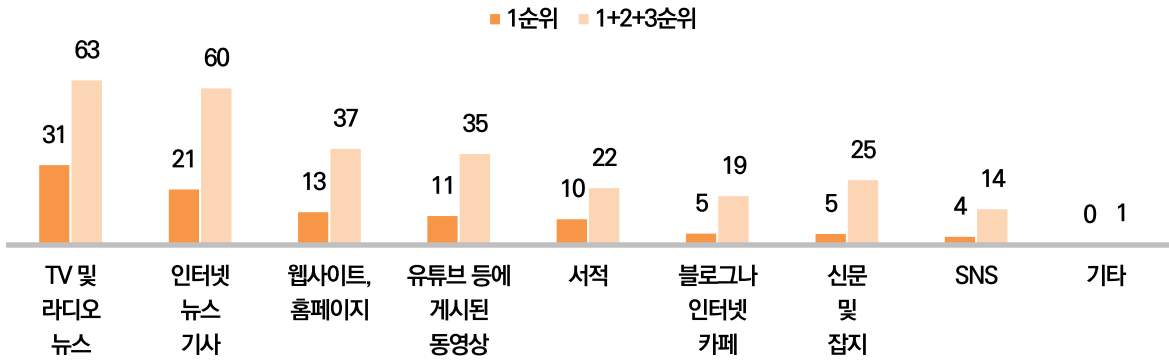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정보나 지식을 찾을 때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TV 및 라디오 뉴스', '인터넷 뉴스 기사'



질문: 귀하께서는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찾을 때 어떤 매체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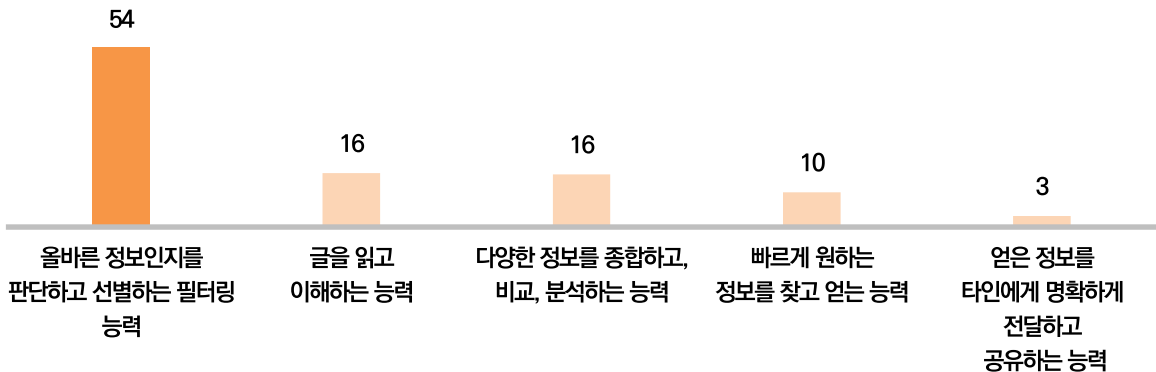
2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보 필터링 능력’이 지금도, 미래에도 중요하다

더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정보 환경 속에서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여전히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필터링 능력(정보 필터링 능력)’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다. 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비교·분석하는 능력(16%)’,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얻는 능력(10%)’,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능력(3%)’도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거짓 정보와 뉴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 시대에서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위: %)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올바른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선별하는 필터링 능력(54%)’



질문: 다음 중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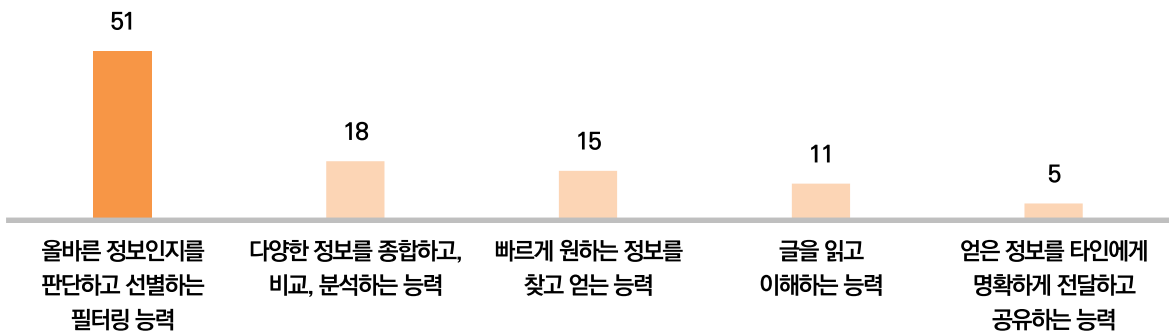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문해능력은 무엇일까? 전체 응답자의 51%는 향후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능력 역시 '정보 필터링 능력'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18%,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얻는 능력'이 15%,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11%,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능력' 5% 순이다. 더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단위: %)

향후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능력도 '필터링 능력(51%)'이 가장 높아



질문: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향후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두 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1순위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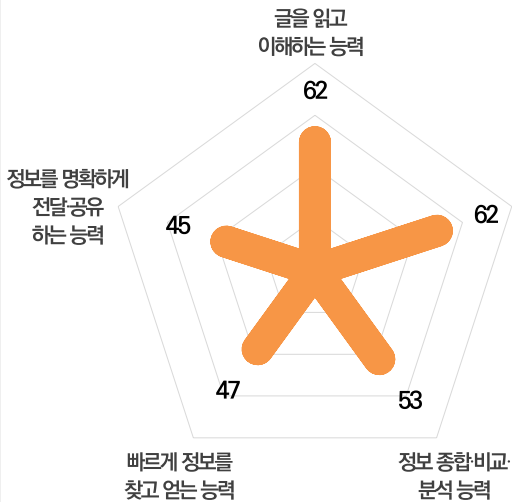
매체 환경과 상관없이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에 따라, 활자 매체와 영상 매체에 따라 필요한 문해능력에도 차이가 있을까? 인쇄된 활자를 읽을 때, 온라인에서 활자 매체를 읽을 때, 온라인에서 영상 매체를 볼 때 등 3가지 경우에 대해 필요한 능력을 묻은 결과, 모든 상황에서 '필터링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이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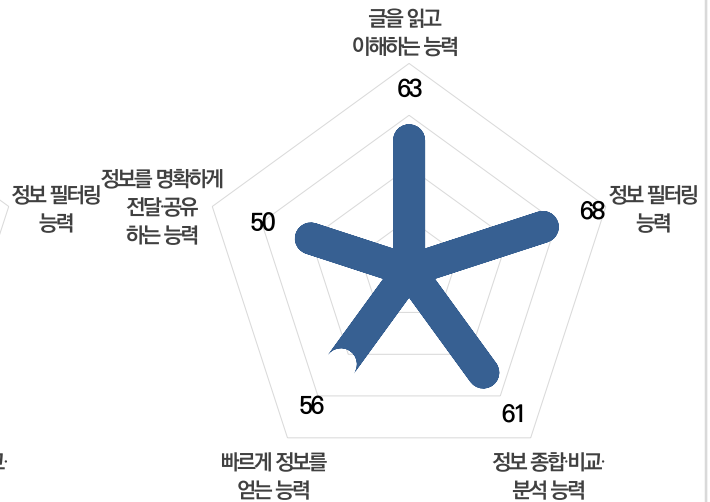
인쇄 활자 매체, 온라인 활자 매체, 온라인 영상 매체 이용 시
모두 '정보 필터링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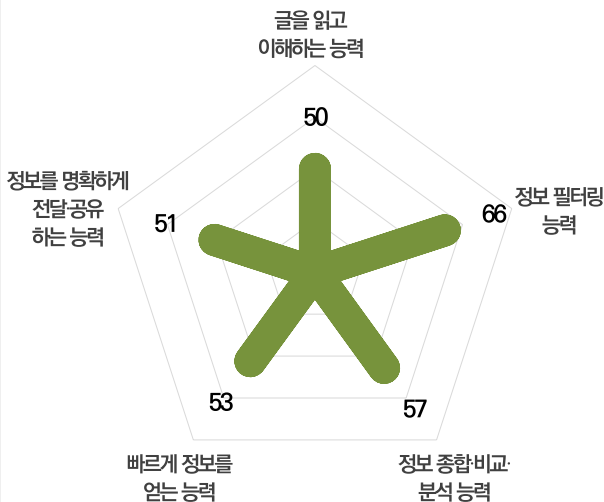
〈인쇄 활자 매체〉



〈온라인 활자 매체〉



〈온라인 영상 매체〉



질문: 각각의 매체를 이용하는 데 다음 각각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매체별로 답변해 주세요.

비고: '매우 필요하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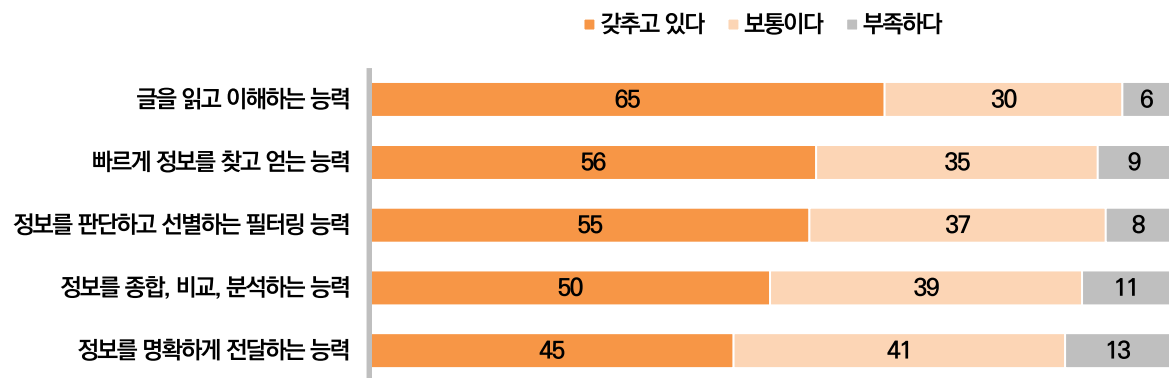
문해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모두 높아

문해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매우 혹은 대체로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65%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얻는 능력(56%)', '정보 필터링 능력(55%)',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비교·분석하는 능력(50%)',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능력(45%)' 등,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능력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스스로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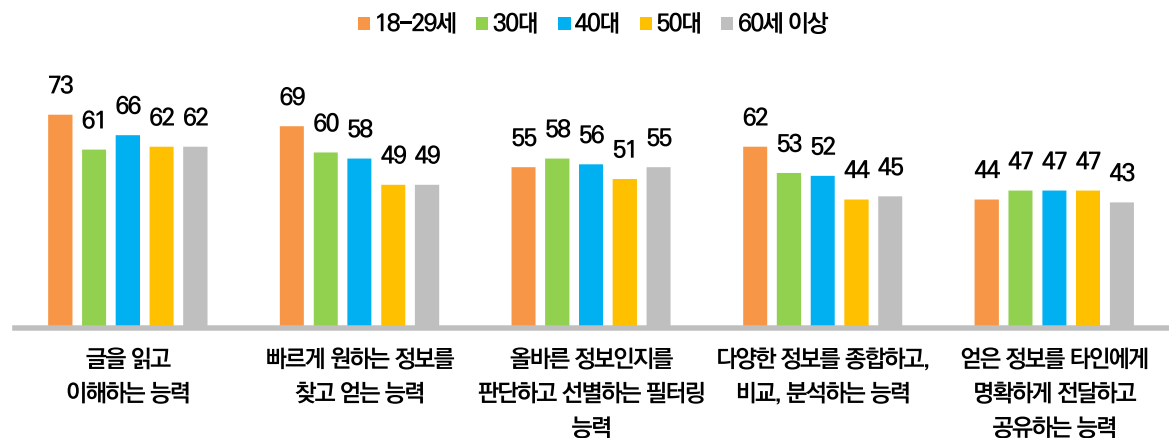
특히 20대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갖추고 있다, 73%)',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얻는 능력(69%)',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비교·분석하는 능력(62%)에 대한 자기평가가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정보 필터링 능력'은 55%만이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해, 다른 연령대와 차이가 없다.

주관적 문해력 수준, 전반적으로 모두 높아

(단위: %)



20대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얻는 능력' 등을 스스로 긍정 평가 '정보 필터링 능력' 갖췄다는 평가는 다른 연령대와 차이 없어



질문: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귀하께서는 다음 능력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본인의 능력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

비고: '갖추고 있다(매우+대체로)', '부족하다(매우+대체로)'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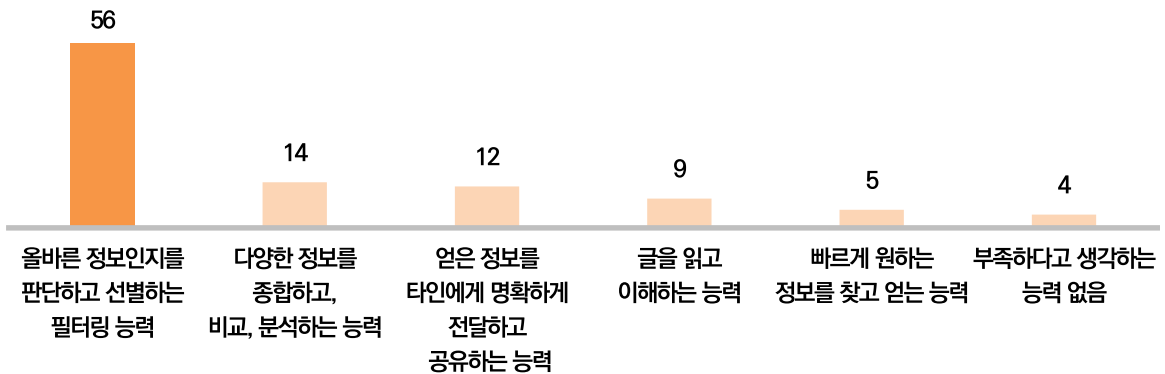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11.10. ~ 11.13.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부족한 '정보 필터링 능력'

주관적인 문해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달리,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단 4%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응답자의 56%가 '정보 필터링 능력'이라고 답했다. '정보 필터링 능력'은 정보를 찾고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족한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모든 세대에서 '정보 필터링 능력'이 가장 부족한 문해능력이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의 난립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는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주목받았던 어휘력 저하 문제와 관련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하다.

(단위: %)

우리 사회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 답한 '필터링 능력'
전 연령대의 절반 이상, 우리 사회가 '필터링 능력'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



질문: 다음 중 우리 사회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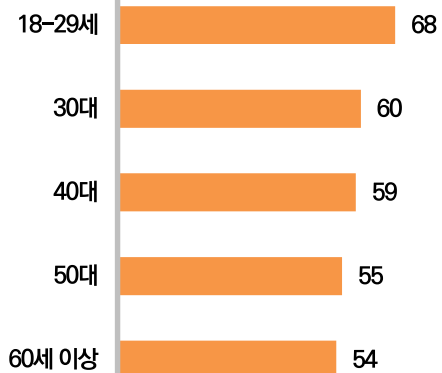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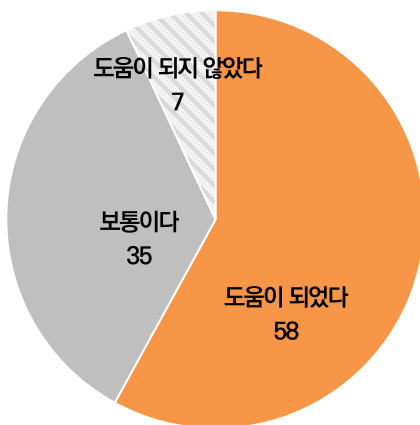
3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향

정보에 대한 이해와 판단 능력에 교육과정의 초점을

현재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은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작동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중 58%가 초·중·고 교육과정이 현재 자신의 문해능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단위: %)

교육 과정이 현재 자신의 문해력 수준에 '도움이 되었다' 58%,
젊은 세대일수록 '도움이 되었다' 응답 높아



질문: 초·중·고 교육과정이 현재의 문해력 수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원 그래프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도움이 되지 않았다)' 응답 제시함.
가로 막대그래프는 '도움이 되었다'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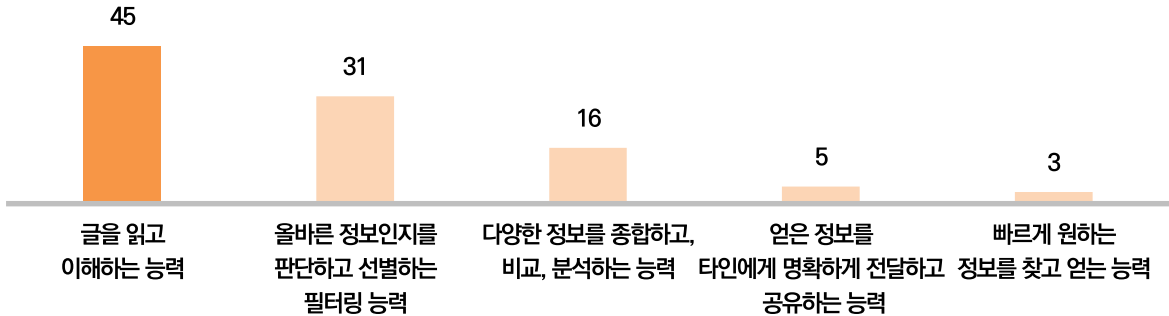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할 능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다. 이어서 '정보 필터링 능력'도 31%로, 정보의 진위 판별 능력 또한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최소 문해력', '정보 필터링' 능력이 그 다음



질문: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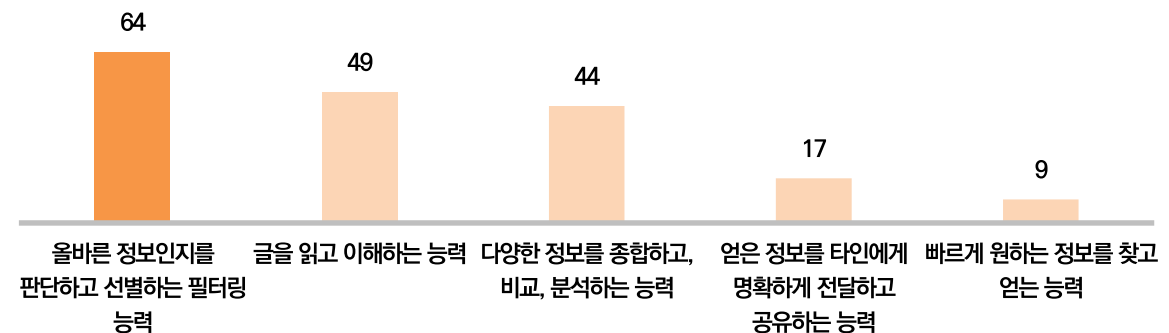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향후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능력으로는 '정보 필터링 능력'이 64%로 가장 높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49%로 뒤를 잇는다(복수응답).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이 글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것과 동시에 정보를 판단하고,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해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최소 문해력 교육에 더해 '필터링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높아



질문: 향후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최대 두 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11.10. ~ 11.13.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글을 이해하는 능력에 더해 비판적 사고를 키울 필요가 있어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우리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입장에 머물러선 안된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등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문해능력 교육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심어주는 교육에서 더 나아가,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0월 기준 전국 8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7,883명, 조사참여 1,33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7%, 참여대비 74.8%)
조사일시	• 2023년 11월 10일 ~ 11월 13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